

## '99년도 상반기 수입식품등의 부적합 현황

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99년도 상반기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신고된 수입식품등은 총 49,863건, 1,652백만불이며 검사결과 216건(부적합률:0.43%), 185만불이 부적합되었다.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어육가공품인 연육제품으로 총 26건, 487톤에 달하였고, 식품별 개별 규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타가공식품과 소스류가 뒤를 이었다.

수입국가별 부적합 현황은 중량을 기준으로 중국, 베트남, 미국, 인디아 순이었으며, 건수로는 중국이 52건으로 약 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국가별 부적합 비율도 0.61%로 전체 부적합 비율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미국은 41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 중 약 19%, 베트남이 21건 약 10%로 그 뒤를 이어 수입량이 많은 국가의 부적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원인별로는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 규격기준을 위반한 것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기타 규격기준 위반순이었다. 특히 검사 결과 도자기류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납, 카드뮴 등의 유해중금속 기준 위반이 11건,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이 8건이었고,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이 11건, 합성착색료 사용기준 위반이 8건에 달하였으며 또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유해 미생물 항

색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적합 식품 등도 많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적합 판정된 식품등의 통관을 불허하고 폐기하거나 수출국에 반송토록 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통해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I. 수입식품등의 신고 현황

'99년도 상반기에 수입신고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농·임산물, 기구 등(축·수산물 제외)은 총 49,863건, 중량은 4,544천톤, 금액은 1,652백만불로서 전년 상반기 대비 신고건수는 약 60%, 중량은 약 16% 증가하였으며 금액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도에는 IMF 영향으로 수입식품등이 '97년도 신고건수 대비 약 59%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98.6.14자로 시행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처리해왔던 축산물가공식품(아이스크림류, 유가공품, 축산가공품, 알가공품 등)의 검사가 농림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보다 식약청 및 국립검역소에 신고된 수입건수가 60%나 늘어나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 II. 품목 및 국가별 신고 현황

품목별 수입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중량 기준으로 옥수수가 1,010천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22.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었으며, 밀, 대두가 각각 982천톤, 580천톤으로 뒤를 이어, 이들 농산물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성 식품, 갈색설탕, 타피오카, 쌀, 바나나 순으로 나타났는데, 주요 10개 품목이 전체 수입량의 84%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4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중량 및 금액에 있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수입 중량의 54.6%, 금액의 3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대두, 옥수수, 밀, 오렌지이며 그 다음으로 호주, 중국 순으로 호주에서는 밀, 중국으로부터는 쌀, 참깨 등 농산물이 주로 수입되었다.

## III.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신고된 총 49,863건(중량:4,544,315톤, 금액:1,652,184천불)중 216건, 1,122톤(1,852천불)이 부적합 되었는데 신고 건수 대비 부적합 비율은 약 0.43%로 전년 상반기의 0.49%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밀검사 부적합 비율은 전년의 2.21%보다 증가한 2.39%로 나타났다.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어육을 가공한 연육제품으로 주로 베트남과 인도에서 수입된 것으로 대장균균 양성 판정을 받아 부적합되었으며 26건 부적합에 중량은 487톤 금액은 54만 달러에 달하였고, 식품별 개별 규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

한 기타가공식품은 미생물 부적합, 소스류는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건어포류, 천연향신료, 건조살구도 부적합이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국가별 부적합 현황은 중량은 기준으로 할 때 중국, 베트남, 미국, 인디아, 말레이시아, 터키, 태국 순이었으며, 건수로는 중국이 52건으로 약 2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국가별부적합 비율도 0.61%로 전체 부적합 비율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미국은 41건으로 전체 부적합 건수 중 약 19%, 베트남이 21건 약 10%로 그 뒤를 이어 수입량이 많은 국가의 부적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 주요 품목별 부적합내용

주요 품목별 부적합 내용은 베트남 및 태국산 등의 어육가공품인 연육은 대장균 양성(기준:음성)으로, 중국, 대만, 미국산의 기타가공품인 양송이통조림, 죽순통조림, 콩단백, 미트너겏 등은 세균 양성, 내용량 및 고행량부족, 합성보존료인 안식향산 검출(기준:불검출), 허용의 식품첨가물인 POTASSIUM IODATE 사용으로 부적합 되었다.

중국 및 북한, 베트남산 건어포 및 조미 건포류에서는 이산화황이 0.05g/kg~ 0.17g/kg(기준:0.03g/kg) 검출과 수분기준 등이 초과되었고, 천연향신료 단순품인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은 세균이 g당 3,300,000~ 4,000,000(기준: g당 1,000,000이하) 검출로, 터키산 건조살구에서도 이산화황이 2.5g/kg(기준: 2.0g/kg)이 검출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산 식물성크림인 코코넛크림은 세균양성(기준:음성)으로, 리고 핫소스, 칠리소스, 그릴드치킨 소스 등 미국 및 일본산 소스류에서는 세균 양성(기준:음성)과 소스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안식향산 및 소르빈산칼륨이 검출되었으며, 중국산 식용번테기가공품에서는 식중독 원인균

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인도네시아 추잉검에서는 허용외 타르색소인 적색 102호가 검출되었고, 칠레산 키위(참다래)는 잔류 농약인 METHIDATHION이 0.137ppm(기준: 0.05ppm) 검출되어 부적합 되었다.

## 2. 기타 주요 부적합 내용

이 밖에도 중국 및 북한산 장뇌삼 5건에서 잔류 농약인 BHC가 0.379ppm~11.079ppm(기준: 0.05ppm)이 검출되었고, 미국산 호두에서는 메틸 브로마이드(MB)가 75.6ppm(기준:30.0ppm)검출 되어 부적합 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호주산 등의 건강보조식품인 화분가공식품과 단백질 식품, 칼슘함유식품은 대장균군 양성(기준:음성)으로, 로얄젤리가공식품, 효소식품, 유산균이용함유식품, 프로폴리스가공식품, 키토산가공식품 등은 내용량 및 함량미달등으로 부적합 되었다.

일본산 도자기제 기구류는 중금속인 납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었고, 중국 및 일본 등에서 수입한 합성수지제 기구류에서도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었다.

염장연근, 건생강, 둥글래, 건도라지 등 중국산 농·임산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최대 3.17g/kg가 검출되었거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태국산 당절임인 건조망고다이스, 건조파과야, 건조파인애플, 건조오렌지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황색 제4호 및 제5호, 적색 40호)및 표백제인 이산화황이 기준치(0.03g/kg)보다 0.25g/kg 초과 검출되었으며, 중국산 검정깨강정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황색 제5호, 청색 제1호, 적색 제3호)검출로 부적합 되었다.

독일산 일반증류주에서는 메탄올이 2.38%(기준:0.5%)검출되고, 중국산 과일주(포도주)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검출되었으며,

독일산 허브향드레싱 및 발삼미코드레싱은 허용외 식품첨가물인 POTASSIUM ACETATE 사용으로, 미국산 스낵류인 바비큐프라이스와 케찹맛프라이스는 SODIUM DIACETATE의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으로, 혼합침출차인 텍티스건강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쉐나를 사용하여 부적합 되었다.

인디아, 중국,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 수입된 식품첨가물은 함량, 순도시험, 확인시험 등에서 부적합 되었고,

또한 중국산 핸드믹스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디옥틸프탈레이트(DOP)가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다.

## IV. 부적합 사유 및 조치

부적합 원인별로는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 규격기준을 위반한 것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어육제품, 건강보조식품 등이었고, 일반 가공식품은 주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24건에 달하였으며, 기타 규격기준 위반이 23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특히 검사 결과 도자기류 등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오는 납, 카드뮴 등의 유해중금속 기준 위반을 11건 적발하였으며, 키위 등의 농임산물의 잔류농약허용기준 위반도 8건, 또한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이 11건, 합성착색료 사용기준 위반이 8건에 이르며, 식용번데기 등에서는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유해 미생물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되는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부적합 식품등도 많았고,

부적합 판정된 식품등은 통관을 불허하고 폐기하거나 수출국에 반송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수입 식품등에 대한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V. 관련자료

### 1. 연도별 수입 현황

년도별 \ 구분	건수	중량(톤)	금액(천불)
'97년	116,267	9,606,022	5,225,406
'98년(1월~6월)	31,098	3,927,872	1,651,439
'99년(1월~6월)	49,863	4,544,315	1,652,184

### 2. '99년도 상반기 수입신고 처리 현황(품목별)

품목유형	구분	건수	중량(톤)	금액(천불)
계	총계	49,863	4,544,315	1,652,184
	적합	49,647	4,543,193	1,650,332
	부적합	216	1,122	1,852
농·임산물	계	8,147	3,911,168	906,539
	적합	8,130	3,911,043	906,334
	부적합	17	125	205
가공식품	계	23,632	515,948	482,358
	적합	23,482	514,979	480,899
	부적합	150	969	1,459
식품첨가물	계	10,155	64,607	133,859
	적합	10,138	64,593	133,761
	부적합	17	14	98
기구·용기 또는 포장	계	7,929	52,592	129,428
	적합	7,897	52,578	129,338
	부적합	32	14	90

### 3. 주요 생산(수출)국별 수입신고 현황

(중량순)

순위	수출국명	중량(톤)	금액(천불)	건수	주요수출품목
계		4,219,221	1,211,626	25,327	
1	미 국	2,482,633	621,847	11,895	대두, 옥수수, 밀,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 오렌지
2	호 주	645,543	116,209	1,012	쌀, 참깨, 향신료조제품, 고추, 견과류단순가공품
3	중 국	332,597	197,977	8,433	밀,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 갈색설탕, 맥주맥, 초콜릿
4	파테말라	259,053	55,705	38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 갈색설탕, 커피, 치콜
5	필리핀	112,694	60,621	994	바나나, 과일·채소류가공품, 파인애플, 기타가공식품, 스낵류
6	태 국	91,222	31,045	980	갈색설탕,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 커피, 과일·채소가공품, 쌀
7	캐나다	78,627	19,309	468	밀, 맥주맥,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 강낭콩, 대두
8	인도네시아	77,638	37,856	466	5'-이노신산나트륨, 타피오카,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 커피, 야자유
9	베트남	73,152	27,430	557	타피오카, 커피, 연육, 돼지감자, 서류가공품
10	말레이시아	66,062	43,627	484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 팜 및 팜올레인유, 후추, 가공초콜릿, 연육

#### 4. 주요 품목별 수입 신고수리 현황

(중량순)

순 위	품 목 구 분	중 량(톤)	금 액(천불)	건 수
계		3,808,548	718,501	2,025
1	옥수수/알곡	1,010,733	109,963	208
2	밀/밀(제분용)	982,102	132,011	357
3	대두/건조	580,366	129,586	401
4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원료	567,949	193,440	335
5	갈색설탕	160,463	33,997	16
6	밀/알곡	156,428	20,301	72
7	타피오카/건조	102,199	11,854	46
8	쌀/매현미/알곡	99,795	34,682	20
9	바나나/신선	94,955	46,519	548
10	보리/맥주맥	53,558	6,148	22

#### 5. 주요 부적합식품 생산(수출)국 현황

(중량순)

순위	수 출 국 명	중 량(톤)	금 액(천불)	건 수	주요 부적합 식품등
계		1,057	1,056	139	
1	중 국	419	497	52	도라지, 다진마늘, 생강, 무, 양송이 죽순통조림, 장뇌삼 등
2	베트남	200	225	21	연육, 조미건포류, 유탕면
3	미 국	166	479	41	스낵류, 소스류, 혼합침출차, 건강보조 식품(효소식품·단백질식품·화분가공식품 ·칼슘함유식품·유산균이용식품 등) 등
4	인디아	78	90	9	연육, 파프리카추출색소 등
5	말레이시아	51	60	2	연 육
6	터 키	36	83	2	건조살구
7	태 국	34	47	9	건조망고, 파인애플, 파파야, 오렌지, 스위트콘
8	도미니카공화국	30	29	1	식물성크림
9	인도네시아	22	31	1	추잉껌
10	칠 레	21	19	1	키위(참다래)

6. 주요 품목별 부적합 현황

(중량순)

순위	품 목 명	중 량(톤)	금 액(천불)	건 수	주요 부적합 내용
계		876	1,007	61	
1	연 육	487	540	26	대장균 양성
2	기타가공식품	154	126	10	세균 양성, 대장균군, 세균수 기준초과, 허용외첨가물 Potassium Iodate 사용, 합성보존료 안식향산 검출
3	기타 전어포류	39	105	5	이산화황 기준초과, 수분함량 초과
4	천연향신료단순품	38	20	3	세균수 기준초과, 수분함량 초과
5	살구/전조	36	83	2	이산화황 기준초과
6	식물성크림	30	29	1	세균 양성
7	소스류	26	35	9	세균 양성,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인 안식향산, 소르빈산칼륨 검출
8	식용번데기가공품	23	19	2	황색포도상구균 양성, 산가 기준초과
9	추잉검	22	31	2	허용외 타르색소 적색 102호검출, 이물혼입 및 곰팡이
10	키위(참다래)/신선, 냉장	21	19	1	잔류농약인 Methidathion 허용기준 위반

7. 수입식품 원인별 부적합 현황

부 적 합 내 용	
계	216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등 미생물기준 위반	55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24
기타 기준 및 규격 위반	23
일반성분 기준 및 규격 위반(수분, 회분, 질소화합물 등)	17
합성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11
중반잔류물, 과망간산칼륨 등 기준 위반	10
기구·용기 또는 포장 중금속(납, 카드뮴 등)허용기준 위반	10
합성착색료 사용기준 위반	8
농약잔류허용기준 위반	8
식품첨가물 확인 및 순도시험 위반	8
성분 또는 원료 배합기준 위반	7
부패·변질	6
식품첨가물 성상 및 함량 위반	4
유통기한경과	3
유해미생물 검출	1
유해성 금속(중금속) 검출	1
기 타	20